

研究論文

# 국어의 비접사 부사 형성에 대하여\*

최형용\*\*

I. 머리말	V. 줄임말과 부사 형성
II. 단어 형성과 형식적 증감	VI. 맺음말
III. 통사적 결합어와 부사 형성	<참고문헌>
IV. 영변화어와 부사 형성	<국문요약>

## I.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파생(derivation)과 합성(compounding)은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절차이다. 여기서 ‘대표적인’이라 한 것은 새로운 단어 형성이 파생과 합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어 형성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이 틀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가령 파생만 하더라도 명사 ‘오늘’과 부사 ‘오늘’은 서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이를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즉 이른바 ‘영접미사(zero suffix)’에 의한 ‘영파생(zero derivation)’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나 ‘반짝반짝’과 ‘번쩍번쩍’에서 보이는 모음의 교체는 사실 파생접미사와 거리가 먼 것이지만<sup>1)</sup> 이를 ‘내적 파

\* 본고는 2008년 8월 17일에 있었던 한국어학회 제2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국어국문학 전공(chy@ewha.ac.kr).

1) 만약 이때 교체되는 모음을 접미사로 본다고 하면, 이 접미사는 형태소 내부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생'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려고 했던 것이 모두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영과생'이나 '내적 과생'은 형식의 증가를 전형적인 특성으로 삼는 과생과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과생에 의해 형성된 과생어는 그 자체로 접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영과생'과 '내적 과생'은 단어 형성의 '과정'에서만 접사가 상정될 뿐 그 결과인 부사 '오늘'이나 '번쩍번쩍'에서는 사실 접사를 분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식의 증가가 일어나고 또 그 증가된 형식이 어근이 아닌 경우에도 전형적인 과생이라 볼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 바로 '진실로, 갈수록'의 '로'나 '-수록'과 같이 조사나 어미와 동일한 형식이 결과적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로'와 '-수록'을 과생접미사로 간주하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구분관(2005)에서 접미사의 범위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결론내린 것처럼 이는 과생접미사를 '분석'의 대상으로 간주했을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sup>2)</sup> 이러한 점에서 이들 '로'와 '-수록' 결합어도 전형적인 과생어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상과 같이 전형적인 과생어로 볼 수 없는 부분에서 단어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합성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단어 형성 과정을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는 합성이 형식의 증가로 설명되지만 규칙이 아니라 유추에 의해 단어가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단어가 대치(replacement)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sup>3)</sup> 만약 이것이 타당하다면 유추에 의한 단어 형성은 합성 개념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보다는 조금 덜 심각하기는 하지만 합성의 테두리에 들어오는 것이 분명한데도 형식의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형식의 감소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칼제비(칼국수+수제비)', '쫄볶이(쫄면+떡볶이)<sup>4)</sup>와 같이 혼성(blending)에 의한 단어 형성이 이에 속하는데 이도 결과만 놓

일종의 접요소(interfix)를 한국어에 인정하는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도 있다.

- 2) 구분관, 「국어 접미사의 분류에 대한 재검토」, 『우리말연구서른아홉마당』(태학사, 2005), 18쪽. 분석적 견해는 대표적으로 고영근(1989)에서 보인다. 고영근, 『국어형태론 연구』(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이양혜(2000)도 이러한 견해를 표방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뜻밖예, 대체로' 등에서 나타나는 '예, 로'를 과생접사화한 과생접미사로 다루고 있다. 이양혜, 『국어의 과생접사화 연구』(박이정, 2000). 서정수(2005)에서는 특히 부사와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서정수, 『한국어의 부사』(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3) 채현식,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 『형태론』, 5/1(박이정, 2003).
- 4) 박용찬,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 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형태론』, 10/1(박이정,

고 보면 전형적인 합성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sup>5)</sup>

본고에서는 품사 가운데 특히 부사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비일반적인’ 단어 형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 보고자 한다. 사실 지금까지의 부사에 대한 논의는 주로 부사의 분류와 그 통사·의미론적 속성에 초점을 둔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단어 형성 측면에서의 논의들도 가령 부사파생접미사 ‘-이’와 같은 전형적이고도 생산성이 높은 파생에 논의를 한정할 경우, 혹은 영파생과 관련한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경우처럼 어느 한 부분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앞에서 제시한 명사 ‘오늘’과 부사 ‘오늘’, ‘반짝반짝’과 ‘번쩍번쩍’, ‘진실로’와 ‘갈수록’이 모두 부사와 관련된다는 사실은 부사 형성이 파생, 합성과 같은 전형적인 단어 형성은 물론 비일반적인 단어 형성의 도처에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본고는 비일반적인 단어 형성이 부사와 관련하여 가지는 관계에 초점을 두으로써 부사 형성 과정의 다양한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다.

## II. 단어 형성과 형식적 증감

부사 형성의 다양한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단어의 형성을 파생과 합성으로 양분하는 체계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언급하건대 기존의 논의들이 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파생과 합성의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느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일종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최형용(2003b)에서 제시한 바 있는 단어 형성 체계를 원용하고자 한다.<sup>6)</sup> 최형용(2003b)은 형식이 줄어들어 단어가 형성되는 ‘줄임말’에 관

---

2008), 122쪽.

5) 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러한 혼성에 의한 단어 형성은 새로운 단어 형성의 방법으로 인식되기는 했지만 ‘설명’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형용(2004)에서는 이들 가운데 ‘음절수’가 하나의 규칙성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최형용, 「단어 형성과 음절수」, 『국어국문학』, 138(국어국문학회, 2004). 한편 박용찬(2008)에서는 혼성을 파생도 아니고 합성도 아닌 제3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박용찬, 앞의 논문, 111쪽.

6) 최형용, 「줄임말과 통사적 결합어」, 『국어국문학』, 135(국어국문학회, 2003b).

심을 기울이기 위해 기존의 단어 형성과는 달리 형식의 증감을 기준으로 삼아 ‘①형식의 증가에 의한 단어 형성’, ‘②형식의 감소에 의한 단어 형성’, ‘③형식의 무증감에 의한 단어 형성’의 세 가지를 상정한 바 있다.<sup>7)</sup>

이러한 체계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적인 파생과 합성 즉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형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은 ①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체계에서는 ‘진실로’, ‘갈수록’과 같은 것을 파생과 합성 가운데 어느 하나로 간주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즉 이들을 파생 및 합성과 대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진실로’, ‘갈수록’을 파생 및 합성과 구별하되 역시 ①에 속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형용(2003a)은 ‘진실로’, ‘갈수록’과 같은 것들을 통사적 결합어(syntactically combined words)라 하여 별도의 자리를 부여한 바 있다.<sup>8)</sup>

둘째, 이러한 체계는 이른바 영파생에 해당하는 것을 ①에서 분리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즉 영파생은 ③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되고 굳이 이를 ①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최형용(2003a)이 영파생을 ‘영변화(zero modification)’라 불러 ‘파생’이란 말을 삭제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 말미암는다.<sup>9)</sup> ‘반짝반짝’과 ‘번쩍번쩍’에서 보이는 ‘내적 파생’에도 마찬가지로 논리가 적용된다. ‘영파생’보다도 더 모순이 많은 ‘내적 파생’이란 말을 ‘내적 변화’로 바꿈으로써 역시 이를 ③에 소속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이 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②와 같이 형식이 감소하는 단어 형성에 대해서도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기존의 단어 형성 분류가 가지는 가장 큰 단점 가운데 하나는 형식의 변화가 없는 것은 모르겠지만 형식이 오히려 감소하는 단어 형성에 대해서는 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형식의 증감을 기준으로 단어 형성 체계를 다시 분류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비록 형식이 증가하는 단어가 가장 많은 부분을,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의 감소를 통해 형성되는 단어를, 설령 그것이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해서 통계적으로는 형식의 증가에 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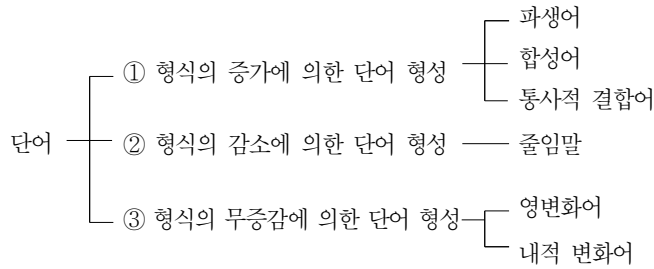
7) 위의 논문.

8)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 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태학사, 2003a).

9) 영변화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전환(conversion)으로 불리기도 한다.

는 무시할 만큼의 크기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 안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것이 오히려 단어 형성 체계의 본질에 더 근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자 한다. 최형용(2003b)이 제시한 ‘째지다’나 ‘어쩨’와 같은 ‘줄임말’이 바로 ②에 속하는 단어의 예이다.<sup>10)</sup>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단어 형성 체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1) 형식적 증감을 기준으로 한 단어 형성 체계



지금까지 파생과 합성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1)에 나타난 다른 것들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파생과 합성이 ‘규칙’과 그에 따른 ‘설명’에 보다 적합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통사적 결합어’나 ‘줄임말’, ‘영변화어’ 및 ‘내적 변화어’들은 규칙성을 거의 보이지 않고 따라서 ‘설명’의 대상으로는 부적합한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

10) 최형용, 앞의 논문(2003b). ‘째지다’나 ‘어쩨’은 ‘째어지다’와 ‘어쩌면’에서 온 것이고 ‘째어지다’와 ‘어쩌면’은 본고의 관점에 따르면 모두 통사적 결합어이므로 사실 ②는 ①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통사적 결합어는 분명히 ①에 속하고 그 이후에 ②의 과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합성어를 유추에 의해 설명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들이 ③의 체계에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11) (1)의 체계는 최형용(2003b)이 제시한 것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 최형용, 앞의 논문. 여기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최형용(2003b)은 통사적 결합어 가운데 ‘줄임말’에 대해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최형용, 앞의 논문.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줄임말’에는 통사적 결합어만 입력형이 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구체적인 예들 즉 ‘파생어’, ‘합성어’, ‘통사적 결합어’, ‘줄임말’, ‘영변화어’, ‘내적 변화어’가 모든 단어 형성을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은섭(2007)이 지적한 바 있지만 가령 앞에서 언급한 혼성에 의한 단어 형성도 ②에 넣어 다룰 수 있다. 이은섭,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박이정, 2007), 110쪽. 다만 이에 의한 부사 형성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는 않기로 한다.

이 ‘규칙’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또 그에 따른 ‘설명’도 제약의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생과 합성 위주의 단어 형성 체계는 꽤 많은 것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규칙’은 연산을 중시하는 ‘과정’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주로 단어 형성의 공시성을 중시하는 데 비해 ‘통사적 결합어’나 ‘줄임말’ 혹은 ‘영변화어’ 등은 단어 형성의 통시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 지향적이라는 것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sup>12)</sup>

그렇다면 이제 국어의 부사 형성은 (1)의 체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 언급할 차례가 되었다. 다만 본고에서 이들 모두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으므로 논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① 가운데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해서는 논의를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 앞서서도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이에 초점이 맞추어진 때문이다. 다음으로 ③에 대해서는 영변화어와 관련된 부분만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특히 의성어 및 의태어를 중심으로 한 내적 변화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형적인 파생어로 간주할 수 없다는 점 이외에 별다른 언급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3)</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통사적 결합어’, ‘영변화어’, ‘줄임말’에 한정하여 부사 형성의 비일반적인 모습을 살펴보는 것으로 논의를 좁히고자 한다.

이 가운데 ‘통사적 결합어’와 ‘영변화어’는 접사 가운데 특히 접미사에 대한 본

12)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의 체계는 단어 형성에 대한 ‘규칙’과 ‘공시성’에 대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단어 형성이 통시적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언급은 박진호(1994)에서 보이고 이에 대한 반론은 이호승(2001)을 참고할 것. 박진호,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4), 10쪽; 이호승, 「단어형성과정의 공시성과 통시성」, 『형태론』, 3/1 (박이정, 2001).

13) 송철의(1992)는 ‘내적 변화에 의한 파생’을 인정하고 있지만 “순수한 의성어나 의태어들은 파생어 형성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흥미로운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듯하다”라고 하여 이들에 대한 양상은 따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태학사, 1992), 291쪽. 신중진(1998)은 이를 조어적 특징이 아닌 음운적 특징으로 다룬 바 있다. 신중진,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성어 및 의태어에 대한 단어 형성 상의 관심은 반복 혹은 중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형태의 증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①에 해당된다. 한편 연재훈·목정수(2000)는 상정부사(의태·의성어)를 순수 부사이자 서술성 부사로 간주하고 있지만, 채완(2003)은 의성어나 의태어는 품사 설정의 대상이 아니며 마치 색채어나 호칭어, 여성어, 직업어 등으로 불리는 어휘 범주와 마찬가지로 그 의미상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용어로 보고 있다. 연재훈·목정수, 「상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한국어학회 2000); 채완,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38~39쪽.

고의 입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에서도 여러 번 암시해 온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결과적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는 조사와 어미를 접미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영변화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본고에서 이들에 의한 단어 형성을 ‘비접사’ 부사 형성이란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비접사’란 그 자체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우선 엄밀한 의미에서 ‘접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을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합성도 접사의 참여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접사’의 테두리에 들어가지만 본고에서는 ‘비접사’에 ‘비일반적인’이라는 의미까지를 부여하여 합성 가운데서는 ‘줄임말’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III. 통사적 결합어와 부사 형성

전술한 바와 같이 통사적 결합어는 통사적 요소인 조사와 어미가 결과적으로 단어 형성에 참여하게 되어 생긴 단어를 일컫는다. 조사와 어미가 참여하였지만 생성된 단어의 품사는 일반적인 파생과 합성처럼 다양하다.<sup>14)</sup> 그러나 통사적 결합어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부사라는 점은 일반적인 파생 및 합성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양명희(1998)의 연구이다.<sup>15)</sup> 양명희(1998)는 사전에서 부사로 처리된 것들 가운데는 의외로 ‘명사+조사’, ‘부사+조사’, ‘어간+어미’, ‘관형형+의존명사’ 구성이 많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양명희(1998)는 이들을 ‘부사어’라 칭하고 있지만 본고의 관점을 따르자면 이들은 모두 통사적 결합어에 해당한다. 양명희(1998)가 제시한 이들 각각의 예들을 유형별로 몇 개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 가. 명사(어근, 부사)+조사 : 때로는, 아마도, 하도, 이만큼, 이때까지 ;  
공짜로, 당초에, 이에서

14) 최형용(2003a)은 통사적 결합어를 어휘적 단어에 국한시켰다. 최형용, 앞의 책. 따라서 조사는 우선 제외되는데 이를 논외로 하면 학교 문법의 9품사 가운데 통사적 결합어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수사뿐이다. 만약 통사적 결합어를 문법적 단어로까지 확대한다면 조사도 당연히 이에 포함될 것이다.

15) 양명희, 「부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1)」, 『한국어학』, 8(한국어학회, 1998).

- 나. 어간+어미 : 그렇게, 덮어놓고, 보아한들, 명칭하니, 가다가, 되도록, 이렇듯
- 다. 관형형+의존명사 : 이런즉, 이런대로

양명희(1998)는 사전 등재의 측면에서 (2)의 예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이하 <표준>)에서는 (2)의 범위에 드는 많은 수가 표제어에서 빠졌다. 그 이유는 양명희(1998)가 밝힌 바와 같이 <표준>의 통합교열지침이 엄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sup>16)</sup> 즉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어만을 부사로 인정한다는 지침 때문에 <표준>에서의 부사 처리와 <국어대사전> 및 <우리말 큰사전>의 부사 처리가 많은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

- (3) 가. 조사나 어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단위가 아니다.
  - 나. 활용에 제약이 있다.
  - 다. 하나의 단위로 기능한다.

(3)에 따라 (2)에서만 살펴보아도 당장 (2가)의 ‘때로는’, ‘이때까지’, ‘공짜로’, ‘당초에’, (2나)의 ‘덮어놓고’, ‘명칭하니’가 아예 <표준>에서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2나)의 ‘그렇게’와 ‘이렇듯’은 각각 ‘그러하게’, ‘이러하듯’의 준말이라는 정보만 언급되어 있으며 (2다)의 ‘이런즉’도 마찬가지로 ‘이러한즉’의 준말로만 풀이되어 있다.<sup>17)</sup>

한편 최형용(2003a)은 <표준>을 중심으로 하여 통사적 결합어의 전반적인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sup>18)</sup> 다만 최형용(2003a)은 통사적 결합어에 참여한 구성 요소를 조사와 어미로 대분하여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양명희(1998)와는 달리 (2다)를 (2나)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최형용(2003a)의 연구에서

16) 위의 논문, 204쪽.  
 17) 이에 따라 <국어대사전>에서는 접미사의 지위도 가지고 있던 ‘에’와 ‘로’가 <표준>에서는 조사의 지위만 가진 것으로 처리되어 있다.  
 18) 최형용, 앞의 책(2003a).



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많은 수의 통사적 결합어가 부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조사와 어미로 나누되 해당 조사나 어미 형태소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단어는 둘 이상인 경우는 이를 괄호 안에 넣어 밝히기로 한다.

(4) 가. 가뜩에(46), 건으로(82), 이에서 ; 그같이(5), 가뜩이나(13), 고나마(6), 그야(4), 그야말로(2), 고대로(13), 고리도(9), 암만(18), 고만치(6), 고만큼(7), 앞서(2), 판은(6), 모처럼(2)

나. 왜냐하면, 어쨌건, 겹거니를거니, 고렇게(5), 고러고(12), 가뜩한데, 보아한들(2), 어쩐지(2), 그러나(7), 기다라니(5), 그러니까, 가다가(5), 되도록(4), 아무튼(5), 고렇듯(5), 갈수록, 걸핏하면(16), 건너질러(18), 세상없어도(4), 그래서(3), 기껏해야(3), 얼락늑을락, 그렇지만(2), 불현듯

(4)에 제시된 328개의 부사는 그 수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려니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통사적 결합어 가운데 다른 어떤 품사보다도 더 다양한 모습을 바로 부사가 보여 준다는 것이다.<sup>19)</sup> 통사적 결합어가 부사화하는 경우는 통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발견된다. ‘고루’나 ‘마주’에서 보이는 ‘-오/우’도 이전 시기에는 다음과 같이 통사적 요소였던 것으로 언급되기 때문이다.<sup>20)</sup>

(5) 가. 버미 갖고로 딘 듯흐며<두초 6:40>

나. 나라히 乾坤의 쿠물 두 겨시니<두초 8:10>

다. 中生과 부터왜 本來 두 시며<법화 1:3>

라. 나는 窩中에 이쉴 제 두서 거르메서 너무 아니 건다니<월석 8:93>

19) 가령 최형용(2003a)은 통사적 결합어 가운데 관형사화한 것을 모두 30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관형사형 어미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명사는 그 수가 많고 ‘어르신’, ‘셨다’와 같은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대체로 ‘-음’, ‘-기’ 결합형에 제한되어 있다.

20)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태학사, 1998a), 333쪽. (5라)의 ‘너무’는 이현희(1996)에서는 이른바 어간형 부사로 다루어진 것이다. ‘ㅈㅈ’의 성조를 보이는 ‘-오/우’ 결합형과는 달리 ‘ㅈㅈ’의 성조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현희, 『중세국어 부사 ‘도로’와 ‘너무’의 내적 구조』,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신구문화사, 1996). 그러나 구본관(1998a)은 ‘너무, 너모’가 나타나는 시기가 ‘너무, 너모’보다 후대에 나타나고 ‘-우’가 활용어미로도 쓰인다는 점을 들어 ‘넙+-우’의 결합형으로 다루고 있다. 구본관, 위의 책, 335쪽.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대 국어에서는 ‘-오/우’가 더 이상 통사적 요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생접미사로 처리되지만 이들 역시 통사적 결합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sup>21)</sup>

이상의 예들은 더 이전 시기는 물론 현대 국어를 포함하여 부사로 결과된 통사적 결합어가 매우 폭넓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4)를 포함하여 조사나 어미 결합 구성이 단어화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에 대한 간접적인 해답은 사실 이미 (3)에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나 어미를 제외한 부분이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는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3가)은 조사나 어미가 그때그때 선행 요소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나 어미 결합체가 하나의 단위로 기능함으로써(3다) 통째로 저장되어 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처음에는 부사어였던 (4)와 같은 경우에서 가장 다양하고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은 (4가)의 조사 결합어 가운데 ‘가뜩에’의 ‘가뜩’이나 ‘건으로’의 ‘건’과 같은 예들이 현대 국어에서는 체언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딴은’도 매우 흥미로운 예이다. ‘딴’은 <표준>에서는 의존명사로서의 쓰임만 등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가령 ‘제 딴은’은 그 구조가 ‘[[제 딴]은]’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은’이 부사화한 것은 ‘딴’과 ‘은’의 결합이 하나의 단위로 재구조화하였음을 뜻한다. 신서인(2000)에서는 ‘딴은’을 포함하여 단독으로 사용되는 ‘나름대로’, ‘딴에는’, ‘때문에’, ‘뵈더러’, ‘뵈만 아니라’ 등을 부사 혹은 부사 상당어로 파악한 바 있는데<sup>22)</sup> 본고의 논의를 따르자면 이는 의존명사가 선행 요소보다 후행 요소와의 결합이 더 공고해진 데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조사나 어미보

21) 구본관(1998a)은 통사적 요소로 보이는 ‘-이’(菩薩이 住혼 곧 업시 호야<금강 22>)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현대국어의 ‘~없이’, ‘~와 달리’의 ‘-이’도 이와 흡사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구본관, 위의 책, 315쪽.

22) 신서인, 『현대국어 의존명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0), 23-24쪽. ‘나름대로’, ‘때문에’, ‘뵈더러’, ‘뵈만 아니라’는 <표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최형용(2003a)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들도 모두 통사적 결합어에 해당한다. 최형용, 앞의 책. ‘때문에’는 홍운표(1995)가 이미 언급했다. 홍운표, 『국어사 시대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의 측면에서 본 시대구분』, 『국어학』, 25(국어학회, 1995), 329쪽. 한편 이광호(2006)는 ‘나름, 딴, 때문, 뵈’이 선행 성분 없이 쓰이는 것은 이들이 대체로 의미의 실질성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광호, 『선행 성분 없이 사용되는 의존 명사 구성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31(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 232쪽.

다도 부사어를 형성하는 조사와 어미는 선행 요소와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처럼 기능하는 경우가 가장 다양하고 또 그 정도도 매우 높은 것이다.<sup>23)</sup>

#### IV. 영변화어와 부사 형성

영변화에 의한 단어 형성을 영파생으로 간주한 것은 공교롭게도 통사적 결합어에 나타난 조사와 어미를 접미사로 간주한 것과 그 동기가 흡사하다. 즉 결과적으로 일어난 품사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영접미사도 ‘분석’의 소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생을, 그것이 비록 무형이라 하더라도 형식의 증가로 설명하려는 입장과도 맞물려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단어 형성을 설명하는 모형은 크게 형태소-기반 모형(morpheme-based model)과 단어-기반 모형(word-based model)으로 나눌 수 있다. Haspelmath(2002)는 이 가운데 후자의 모형을 더 선호하고 그 이유로 단어-기반 모형이 전환(conversion), 역형성(back-formation)과 같은 모든 종류의 비연쇄(non-concatenative) 과정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기술할 수 있는 반면 형태소-기반 모형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sup>24)</sup> 영접미사를 인정하지 않는 본고의 영변화도 이러한 측면에서 단어-기반 모

23) 격을 문법격과 의미격으로 나눌 때 부사격은 의미격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다를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조사가 잘 생략되지 않는 것으로 논의되는 것도 선행 요소와의 관계가 긴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유현경(2006)은 ‘어머니가 아이를 곱게 안았다’의 ‘-게’는 파생 접사적 기능을 띠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것도 부사어를 형성하는 어미가 보이는 선행 요소와의 긴밀성에서 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유현경, 「형용사에 결합된 어미 ‘-게’ 연구」, 『한글』, 273(한글학회, 2006).

24) Haspelmath, M., *Understanding Morphology*(Arnold, 2002), p. 48. Haspelmath(2002)의 단어-기반 모형은 물론 굴절에도 적용되는 것이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단어 형성에만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Haspelmath(2002)는 단어-기반 모형이 형태소 개념의 불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첫째,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두사, 접미사, 어근, 이형태와 같은 형태소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둘째, 단어들이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형태소는 음운론과도 연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음운론적 교체가 형태소 경계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넷째, 만약 형태소-기반 모형이 맞지 않는다면 왜 단어-기반 모형에 의해서만 설명이 가능한 비연쇄적 형태론적 현상들은 연쇄적 형태론적 현상들에 비해 그렇게 소수인가 하는 것이다. Haspelmath, 앞의 책, 178쪽. 이에 대해 Haspelmath(2002)는 새로운 형태론이 통사적 구성에서 접사화하는 문법화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형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sup>25)</sup> 한편 Clark(1993)에 의하면 의미의 투명성(transparency of meaning)과 형식의 단순성(simplicity of form) 측면에서 어린 아이들이 전환(conversion)에 의해 단어들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sup>26)</sup> 전환 즉 영변화는 서로 의미상의 연관성에서 투명할 뿐만 아니라 형식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흔히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전환 즉 영변화가 파생의 하나로 인식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변화가 만약 파생이라면 그것은 외현적인 접사 첨가가 아니기 때문에 파생 체계에서도 매우 유효적인 것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마찬가지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야 할 텐데 어린이의 언어 형성 과정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의미의 투명성’과 ‘형식의 단순성’에 따라 어린이들이 영변화를 통해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이는 오히려 합성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라 보아야 할 듯하다.<sup>27)</sup>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영변화에서 나타나는 부사 형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보기로 한다.

- (6) 가. 오늘, 지금, 내일, 모레, 글피, 어제, 그저께, 처음, 밤낮, 요사이, 나중,  
       요즈음, 진짜, 정말, 참말, 이쯤, 가로, 세로  
       나. 낮추, 내리, 늦추  
       다. 더디, 느리

(6)은 송철의(1992)의 연구에서 가져온 것이다.<sup>28)</sup> 통사적 결합어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영변화에서 발견되는 품사가 부사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동사의 형용사화 혹은 형용사의 동사화, 명사의 동사화 등이 더 존재하기 때문이다. (6가)는 영변화에 의한 부사 형성 가운데 대표적인 명사의 부사화를 보여 준다.<sup>29)</sup> 우선 영

설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Haspelmath(2002)는 형태소-기반 모형과 단어-기반 모형은 형태소를 일차적인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차적인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5) 형태론의 모델에 대한 심리언어학적 개관은 Booij(2005)를 참고할 것. Booij, G., *The Grammar of Words*(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242~249.

26) Clark, E. V., *The Lexicon in Acquisition*(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109~125.

27) Booij, G., *op. cit.*, p. 239.

28) 송철의, 앞의 책, 277~287쪽.

29) 이 가운데 ‘오늘’ 이하 ‘요즈음’까지는 시간 명사의 부사화 예이다.

두에 두어야 할 것은 (6가)와 같이 명사가 부사화하는 예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가까이, 일쑤, 한창, 먼저’ 등처럼 부사가 명사화하는 예도 있다는 것이다.<sup>30)</sup> 이처럼 명사와 부사가 서로 넘나드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본관(1998b)은 Scalise(1984)의 수정 단일 어기 가설을 바탕으로 명사를 [+N, -V], 부사를 [+N, +V]로 자질 표시한 바 있다.<sup>31)</sup> 즉 부사도 명사의 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넘나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Scalise(1984)는 부사에 대한 자질 표시는 베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사를 [+N, +V]로 표시한 것은 국어의 특수한 사정 때문은 아닌지 하는 것은 검토의 여지가 있다. (6가)와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사의 명사화보다는 명사의 부사화가 훨씬 생산적이라는 사실이다.<sup>32)</sup> 이는 (6나, 다)의 경우를 보면 그 의미하는 바가 보다 뚜렷해진다. (6나)는 동사가 부사화한 예이고<sup>33)</sup> (6다)는 형용사가 부사화한 경우인데 그 반대로 부사가 동사화한 예나 형용사화한 예는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6가)의 부사화는 그 초점이 부사 형성에 맞추어진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6가)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것들은 다음과 같은 명사들의 부사화이다.

- (7) 본격 — 본격적, 본격에 어긋나다, 본격 진출, 화학 업종에 본격 참여하다,  
 지난해부터 본격 출하된 차
- 순간 — 순간적, 사고가 순간에 발생하다, 순간 당황하다, 순간 놀라다.
- 적극 — 적극적, 적극 가담, 적극 권장되어야 한다, 적극 찬성한다고 밝히다,  
 적극 모색하기로 하다.
- 전격 — 전격적, 전격으로 조각된 내 내각, 전격 퇴진; 감축안에 전격 합의

30) 이현희(2006)의 ‘멀리’나 이영경(2008)의 ‘오래’도 명사가 부사화한 예로 언급된다. 이현희, 「‘멀리’의 통시적 문법」, 『관악어문연구』, 31(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6); 이영경(2008), 「‘오래’와 ‘오래다’의 문법적 위상에 대하여」, 『형태론』, 10/1(박이정, 2008).

31) 구본관,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15세기 국어 파생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4/1(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1998b). 물론 구본관(1998b)은 어기로서의 명사와 부사에 대해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6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연재훈·목정수(2000)도 한국어의 부사는 명사성을 가진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연재훈·목정수, 앞의 논문.

32) 송철의, 앞의 책, 279쪽.

33) 이것은 이른바 어간형 부사를 의미하는데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현희(1996)는 성조 패턴의 차이를 들어 ‘너무’뿐만이 아니라 ‘도로’, ‘두루’, ‘바로’ 등을 ‘-오/우’ 결합형이 아니라 어간형 부사로 보고 있는데 이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현희, 앞의 논문(1996).

하다, 전격 시행되다.

집중 — 집중적, 공부에 집중을 하다, 집중 공세; 감축 방안을 집중 논의하다, 포함 여부를 집중 조사하다.

(7)에서 제시된 예들 가운데 ‘본격’, ‘순간’, ‘적극’은 이선웅(2000)이, ‘본격, 적극, 전격’은 김선효(2002)가 관형명사 목록에 포함시켜 다루고 있지만 ‘집중’은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sup>34)</sup> 이들은 모두 접미사 ‘-적’이 결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명사성이 확보된다. 그런데 이 단어들은 그 자체로 부사로도 사용된다. <표준>에서는 이들이 모두 명사로서만 풀이되어 있지만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직접’(직접 거래; 그 사람을 직접 만나다), ‘자연’(자연 건조; 자연 눈물이 흐르다), ‘절대’(절대 안정; 절대 만류하지 않겠습니다)가 명사와 부사 두 가지로 풀이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즉각’이다. <표준>의 풀이를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즉각 (卽刻)

[ -각]

「부」당장에 곧. ≒각즉. 『내 말을 즉각 시행하라./경복궁으로 진입한 대원군은 즉각 국왕에게 이번 거사의 진의를 설명하여 그 동의를 얻는다.≪유주현, 대한 제국≫/그 집 근처에서 인기척만 났다 하면 즉각 안에서 무서운 세퍼드 짓는 소리가 날 테니까 조심해야 돼.≪박완서, 꿈을 찍는 사진사≫  
「참」당각.

즉각-적

(一的)[ -각적]「관」「명」당장에 곧 하는. 또는 그런 것. 『즉각적 조치/즉각적 해명//즉각적으로 반응하다/여태껏 곤한 잠에 빠져 있던 시가지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서 엿저녁 같은 즉각적인 응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박영한, 인간의 새벽≫/독수리는 오늘 밤 안으로 헤치워야 할 일 한 가지를 즉각적으로 결정했다.≪이문희, 흑맥≫ §

34) 이선웅,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한국문화』, 26(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0), 54쪽; 김선효, 「현대 국어의 관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2), 78쪽.

‘즉각’은 ‘즉각적’이 되는 것으로 보아 명사 혹은 적어도 명사성 어근의 자격을 지녀야 할 텐데 부사로만 처리되어 있다.<sup>35)</sup> 앞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즉각’은 명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지금은 ‘부사’의 지위를 굳혀 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영변화를 통한 부사 형성과 관련하여 더 논의할 여지가 있는 것은 관형사와 부사의 관계이다. 가령 ‘바로 옆’과 같은 구성에서 ‘바로’의 지위를 부사이되 명사를 수식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예 이를 관형사로 간주하는 견해도 존재한다.<sup>36)</sup>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대의 경우 즉 관형사가 부사화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부사가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고 언급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용언 이외에도 수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앞’의 ‘바로’를 부사로 볼 것인가 혹은 수식 범위를 넓혀 명사를 수식한다고도 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관형사는 체언 이외에는 수식하는 일이 없는 품사로 언급된다. 따라서 만약 관형사가 체언 이외의 것을 수식한다고 하면 이것은 관형사의 자격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8) 가. 맨 앞에 앉다.

나. 맨 먼저 국어를 공부하다.

(8가)의 ‘맨’은 ‘앞’이라는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sup>37)</sup>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지는 (8나)의 ‘맨’은 ‘먼저’를 수식하고 있다. ‘먼저’는 명사와 부사 모두로 기능하는 단어이다. ‘먼저의 일은 내가 사과할게’, ‘먼저와 같은 실수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에서의 ‘먼저’는 명사의 자격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먼저 손부터 씻어라’와 같은 예에서의 ‘먼저’는 부사임에 틀림없는데 그렇다면 (8나)의 ‘먼저’는

35) 한편 이선웅(2000), 김선효(2002)는 ‘즉각’을 모두 관형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이선웅, 앞의 논문; 김선효, 앞의 논문.

36) 이에 대해서는 이규호(2008)가 자세히 논의했다. 또한 이규호(2008)는 이를 여전히 부사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문법의 견해와 일맥상통한다. 이규호, 「체언 수식 부사-부사 관형 구성 연구」, 『국어학』, 51(국어학회, 2008).

37) ‘다른 것은 쉬이지 아니하고 온통’의 의미를 가져 ‘이 산은 맨 소나무뿐이다’에서 쓰이는 부사 ‘맨’과는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디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까? 본고는 (8나)의 ‘먼저’는 부사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경우의 ‘먼저’는 명사로서의 ‘앞선 때’의 의미를 가지기보다 ‘앞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조사의 통합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먼저’를 수식하는 ‘맨’은 관형사라고 할 수 없고 부사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부사라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따라서 이처럼 관형사도, 드물기는 하지만, 부사화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sup>38)</sup> (6)~(8)은 어휘 부류 사이의 관계임에 비하여 문법 요소와 어휘 요소 사이에서 부사화와 관련되는 논의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조사의 부사화이다.

#### (9) 보다, 마냥

홍윤표(1995)는 근대국어와 현대국어의 경계에서 나타나는 조사의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조사의 부사화’라 언급하고 그 예로 ‘보다’가 대표적이며 ‘마냥, 버텨(부터)’도 이러한 테두리에서 다룰 수 있다고 하였다.<sup>39)</sup> 이에 따르면 (9)의 경우들도 (6)~(8)과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다룰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의 부사화도 매우 특수한 경우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영변화와 관련된 부사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영변화를 통한 부사 형성도 통사적 결합에 의한 부사 형성처럼 다른 어떤 품사보다도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줄임말과 부사 형성

최형용(2003b)은 ‘줄임말’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sup>40)</sup>

- 
- 38) 유현경(2008)은 “한 30분 숙면하고 나니까”, “한 서른이 좀 넘었을까?” 등에서의 ‘한’은 ‘대략’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관형사 ‘한’에서 전이된 부사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유현경, 「관형사 ‘한’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국어학회, 2008).
- 39) 홍윤표, 앞의 논문, 329쪽. 한편 안주호(2001)는 ‘보다’와 같은 조사의 부사화를 역문법화(agrammaticalization)의 관점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만 문헌에서 출현한 시기를 근거로 할 때 ‘마저’나 ‘마냥’은 조사의 부사화가 아니라 부사의 조사화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안주호,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8/2(담화와 인지언어학회, 2001).



(10) 가. ‘줄임말’은 형식적인 감소 과정을 통해 새로운 어휘적 단어로 결과된 것이다.

나. (가)에서 ‘줄어들’이 일어나기 전의 형식은 내부 구조를 갖지만 하나의 어휘적 단어여야 한다.

다. (가)에서 ‘줄어들’이 일어난 다음의 형식은 ‘줄어들’이 일어나기 전의 형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의미를 가져야 한다.

(10가)는 ‘줄임말’의 정의적 속성을 언급한 것이다. ‘형식적인 감소’란 ‘축약’과 ‘탈락’의 두 가지를 함께 언급하기 위한 것이다. (10나)와 (10다)는 (10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한 것인데 먼저 (10나)는 ‘줄임’이 일어나기 전에도 단어여야 한다는 것이고 (10다)는 ‘줄임’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준말’은 ‘줄임말’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형용(2003b)이 밝힌 바와 같이 ‘줄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의 단어가 아닌 것에서 출발한 것도 폭넓은 의미에서 ‘줄임말’에 포함될 수 있다.<sup>40)</sup> 따라서 (10)에 해당하는 것을 ‘협의의 줄임말’이라 하면 확대된 줄임말은 ‘광의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줄임’을 통해 부사로 결과된 예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광의의 줄임말’에 해당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1) 가. 그래서, 그러므로, 당최<sup>42)</sup>

나. 그러나, 그러나저러나, 그러니까, 그러면<sup>43)</sup>

다. 요컨대, 원컨대<sup>44)</sup>

(11가)의 예들은 각각 ‘그리하여서’, ‘그러하므로’, ‘당초에’ 즉 어미 혹은 조사 결합 구성이 줄어든 것인데 그 결과 하나의 부사로 형성된 것들이다. 이지양(1993)은 이들 외에 ‘그래도’와 ‘그래야’를 더 언급하고 있지만<sup>45)</sup> ‘그래도’는 ‘그리하여도’ 혹은 ‘그러하여도’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고의 ‘줄임말’에

40) 최형용, 앞의 논문(2003b), 211쪽.

41) 위의 논문, 215쪽.

42)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21쪽.

43) 최형용, 앞의 논문(2003b), 215쪽.

44) 박보연, 「현대국어 음절축소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5), 85쪽.

45) 이지양, 앞의 논문, 21쪽.

는 해당되지 않고 ‘그래야’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줄임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sup>46)</sup> 이에 비해 ‘그래서’나 ‘그러므로’는 독자적인 접속 부사로서의 쓰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줄임말’에 해당한다.<sup>47)</sup> ‘당최’도 같은 맥락에서 ‘줄임말’에 해당한다. 즉 ‘{\*당초에/당최} 알 수가 없다’와 같은 예를 보면 ‘당최’는 줄기 이전의 ‘당초에’와는 구별되는 ‘도무지, 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8)</sup> (11나)에 제시된 것은 (11가)의 ‘그래서, 그러므로’가 ‘줄임말’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광의의 줄임말’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sup>49)</sup> 위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어쩌면’도 이에 포함된다. 한편 (11다)의 것들도 줄기 이전의 형식은 단어라고 볼 수 없다. 즉 ‘요컨대’와 ‘원컨대’는 ‘기억하건대, 비유하건대, 짐작하건대, 청하건대, 추측하건대’ 등의 예를 참고한다면 각각 ‘요하건대’, ‘원하건대’에서 줄어든 것이지만 줄어든 결과가 가령 ‘요컨대 당신은 언제 떠날 거요?’에서는 ‘여러 말 할 것 없이’의 의미를 가지고 부사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줄임말’의 범위에 들어온다. ‘기억하건대, 비유하건대, 짐작하건대, 청하건대, 추측하건대’ 등도 모두 ‘기억컨대, 비유컨대, 짐작컨대, 청컨대, 추측컨대’로 줄어들 수 있지만 이들은 모두 단순한 준말의 자격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예는 ‘예컨대’나 ‘비컨대’와 같은 예이다. 이들은 ‘요컨대’나 ‘원컨대’와 달리 ‘예하건대’와 ‘비하건대’를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에서의 ‘-컨대’는 접미사로 분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sup>50)</sup> 다음의 것들은 ‘협의의 줄임말’에 해당하는 부사 형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 
- 46) <표준>에는 ‘그래도’가 ‘그리하여도’나 ‘그러하여도’의 단순한 준말로 처리되어 품사 정보를 갖지 못하고 있고 ‘그래야’는 아예 등재조차 되어 있지 않다.
- 47) <표준>에는 ‘그래서’에 접속 부사와 ‘그리하여서’의 준말 두 가지 정보를 주고 있다. 한편 ‘그러므로’에는 준말 정보가 없다. 접속 부사로서의 용법만 인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48) 이 역시 <표준>에는 ‘당초에’의 준말 정보를 실고 있지 않다.
- 49) 다만 (11나)의 예들에는 모두 <표준>에 준말 정보도 실려 있다.
- 50) 이와 비슷한 것에 ‘결단코’, ‘기필코’, ‘결코’, ‘기어코’, ‘한사코’, ‘정녕코’의 ‘-코’를 들 수 있다. <표준>에서는 ‘-코’를 접미사로 등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에서의 ‘-코’가 ‘-하코’로 환원될 수 없다는 관점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들 가운데 ‘맹세코’ 정도는 아직 ‘맹세하코’와 그나마 어느 정도 관련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코’도 ‘-하코’와의 관련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이희자(1997)는 ‘맹세코’를 ‘줄어서 된 말’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컨대’는 아직 <표준>에 접미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희자, 『준말과 줄어든 낱말과 줄인 낱말』, 『사전편찬학연구』, 7(사전학회, 1997), 35쪽.

(12) 가. 줌

나. 완전<sup>51)</sup>

(12가)의 ‘줌’은 ‘조금’의 축약형이고 ‘조금’도 부사이지만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단순한 준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sup>52)</sup>

(13) 가. 둘이 그렇게 사이 좋게 지내니 {\*조금/줌} 좋으나?

나. 손 {\*조금/줌} 빌려 주세요.

(13가)의 ‘줌’은 주경희(2000)가 제시한 ‘줌2’로 ‘먹고 살 만큼 돈이 줌 있어’와 같은 예에서는 ‘조금’의 준말과 연관되는 ‘줌’보다는 더 많은 분량을 지시할 수도 있어서 서로 대체되지 않는다. (13나)는 주경희(2000)가 ‘줌3’으로 지칭한 것으로 일종의 기능어로 파악된 것이다.<sup>53)</sup> 이 역시 ‘조금’으로는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서의 ‘줌’은 ‘조금’의 준말이라고 할 수 없고 ‘줄임’을 통해 새로운 부사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54)</sup> 이러한 측면에서 이 ‘줌’은 협의의 줄임말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나)의 예는 (12가)에 비해 다른 품사에서 줄임을 통해 부사화한 것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소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은섭(2007)은 이를 ‘완전히’에서 ‘-히’가 줄어든 것으로 보았지만 각주에서 ‘완전 탈락’과 같은 용법에서의 이른바 관형 명사의 용법 확대로 볼 가능성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sup>55)</sup> 물론 ‘완전’은 이선웅(2000), 김선효(2002)의 관형 명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sup>56)</sup> 이선웅(2000)도 ‘최근’과 같은 관형명사가 부사로도 쓰인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김선효(2002)도 ‘적극, 일괄, 본격, 연속, 전격, 대폭’ 등이 부사적 용법을 보인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sup>57)</sup> 그러나 ‘최근’에 대해서는 (6가)적인 의미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51) 이은섭, 앞의 논문, 94쪽.

52) 주경희(2000)가 제시한 바와 같이 ‘{조금/줌} 먹었는데도 벌써 배가 부르다’와 같은 예를 보면 ‘조금’이 ‘줌’과 단순한 축약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주경희, 「‘줌’과 ‘조금」, 『국어학』, 36(국어학회, 2000), 391쪽.

53) 이 경우의 ‘줌’은 앞으로 조사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54) 부정어와 호응하는 부사 ‘줄처럼’의 ‘줌’도 ‘조금’과 거리가 떨어진 경우이다.

55) 이은섭, 앞의 논문, 94쪽.

56) 이선웅, 앞의 논문, 김선효, 앞의 논문.

의 예외적인 용법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적극, 일괄, 본격, 연속, 전격, 대폭’ 등에 대해서도 부사화하고 있는 관형명사로 처리하여 결국 명사성을 버리고 있지는 않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완전’을 ‘완전히’에서 ‘-히’가 탈락한 것이라고 본 이은섭(2007)의 논의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7)에서 제시된 예들이 모두 ‘-적’ 파생어를 형성하지만 ‘완전’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역시 (7)의 예들이 모두 ‘-하다’ 파생어를 형성할 수 없지만 ‘완전’만 ‘-하다’ 파생어를 보여 ‘완전히’와 같은 부사를 형성시킨다는 점도 (7)의 예들과는 달리 ‘완전’을 ‘-히’ 탈락형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만약 ‘완전’이 관형명사의 부사화라면 이는 물론 영변화에 포함되겠지만 여기서는 우선 이를 ‘줄임말’에 넣어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예들은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14) 가. 급거, 돌연, 흡사  
나. 새삼

우선 (14가)의 ‘급거’, ‘돌연’, ‘흡사’는 모두 ‘급거히’, ‘돌연히’, ‘흡사히’와 같은 부사를 가지고 있고 ‘-하다’ 파생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과 비슷하다. ‘-하다’ 파생어가 부사가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히’를 가지는 것이고 ‘급거’, ‘돌연’, ‘흡사’는 명사로서의 쓰임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도 ‘급거히’, ‘돌연히’, ‘흡사히’ 각각에서 ‘-히’가 탈락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예들이 된다.<sup>58)</sup> 한편 (14나)의 ‘새삼’에서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새삼스럽다’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스럽’은 선행하는 어기로 명사나 어근을 요구한다. 따라서 ‘새삼’이 명사의 쓰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어근으로 보아야 할텐데 당당히 부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sup>59)</sup> 본고에서는 (14나)

57) 이선웅, 위의 논문, 54쪽; 김선효, 위의 논문, 76쪽.

58) ‘은근’과 같은 예도 매우 흥미롭다. ‘은근’은 그 자체로 명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은근 재미 있다’에서는 부사의 용법을 보인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면 단순한 명사의 부사화로 간주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것도 ‘완전히’처럼 부사 ‘은근히’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완전’처럼 ‘-히’가 탈락한 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9) 송철의(1992)는 ‘갑작스럽다, 새삼스럽다, 뒤스럭스럽다’의 예에서 ‘갑작, 새삼, 뒤스럭’을 부사성 어근이라 한 바 있다. 송철의, 앞의 책, 205쪽. 그러나 부사의 지위를 가지는 ‘새삼’과는 달리 ‘갑

의 ‘새삼’도 ‘새삼스레’라는 부사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즉 ‘새삼스레’에서 ‘스레’가 탈락하여 부사 ‘새삼’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11), (12가)의 예들은 ‘줄임’ 가운데 ‘축약’을 통해 부사가 형성된 것이 되고 (12나), (14)의 예들은 ‘줄임’ 가운데 ‘탈락’을 통해 부사가 형성된 것들이 된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비접사’에 의해 형성되는 부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도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일반적인 단어 형성으로 간주되던 모든 부분에서 부사 형성을 목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목한 바 없다. 이러한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 우선 단어 형성 체계를 파생과 합성으로 양분하던 것에서 탈피하여 ‘형식의 증감’을 기준으로 삼아 단어 형성 체계를 다시 제시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에 따라 비접사 부사 형성을 통사적 결합어, 영변화어, 줄임말로 나누어 언급하였다. 각각의 논의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통사적 결합어, 영변화어, 줄임말이 모두 부사만을 형성시키는 것은 아니고 또 부사를 형성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통사적 결합어와 영변화어를 통해서는 다른 어떤 품사보다도 부사 형성의 강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줄임말 가운데는 탈락보다는 축약을 통한 부사 형성이 주류를 이루고 또한 통사적 결합이 부사화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부사라고 하는 품사 자체의 형성이 어떤 기제에 따른 것인지 언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로 사전에 실려 있는 즉 어느 정도 단어화가 완성된 것들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임시어 수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가령 구어에서 흔히 쓰이는 ‘이 사과 왕 크다’의 ‘왕’은 영변화에 의한 부사 형성이라 할 수

---

작, ‘뒤스락’은 부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만약 어근이 부사화한 것이라면 폭넓은 의미에서 역문법화의 테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있고 ‘나는 영어가 캡 싫다’의 ‘캡’도 ‘캡틴’에서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영변화 혹은 줄임말에 의한 부사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제대로’에서 온 부사 ‘지대’는 그야말로 줄임말에 의한 부사 형성의 예가 된다.

국어의 부사 형성과 다른 언어의 부사 형성을 유형론적으로 비교하지 못한 것도 본고의 아쉬움이라 할 수 있다. 가령 Booij(2005)는 네덜란드어의 부사 ‘natuurlijk (‘of course’)’가 그 어기인 명사 ‘natuur(‘nature’)’와의 의미론적 관련성이 떨어져 일상 발화에서는 ‘tuurlijk’로 쓰이고 있고 이를 줄임의 예로 들고 있는데,<sup>60)</sup> 이와 같은 예들이 다른 언어에도 폭넓게 분포하는지 천착하지 못한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본고의 논의는 언어적 보편성을 확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국어의 특수성을 보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다리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고영근, 『국어형태론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9.
- 구본관,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서울: 태학사, 1998a.
- 구본관, 「단일 어기 가설과 국어 파생 규칙: 15세기 국어 파생법을 중심으로」. 『어학연구』 34/1, 1998b, 153~174쪽.
- 구본관, 「국어 접미사의 분류에 대한 재검토」. 『우리말연구서른아홉마당』. 서울: 태학사, 2005.
- 김선효, 「현대 국어의 관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박보연, 「현대국어 음절축소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박용찬, 「국어의 단어 형성법에 관한 일고찰: 우리말 속의 혼성어를 찾아서」. 『형태론』 10/1, 2008, 111~128쪽.
- 박진호,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서정수, 『한국어의 부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송철의,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서울: 태학사, 1992.
- 신서인, 「현대국어 의존명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신중진, 「현대국어 의성의태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안주호, 「한국어의 문법화와 역문법화 현상」. 『담화와 인지』 8/2, 2001, 93~112쪽.

---

60) Booij, G., *op. cit.*, p. 274.

- 양명희, 「부사의 사전적 처리에 대하여(1)」. 『한국어학』 8, 1998, 173~206쪽.
- 연재훈·복정수,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 2000, 89~118쪽.
- 유현경, 「형용사에 결합된 어미 ‘-게’ 연구」. 『한글』 273, 2006, 99~123쪽.
- 유현경, 「관형사 ‘합’에 대한 연구」. 『국어학』 53, 2008, 65~86쪽.
- 이광호, 「선행 성분 없이 사용되는 의존 명사 구성에 대한 고찰」. 『관악어문연구』 31, 2006, 219~236쪽.
- 이규호, 「체언 수식 부사-부사 관형 구성 연구」. 『국어학』 51, 2008, 3~28쪽.
- 이선웅, 「국어의 한자어 ‘관형명사’에 대하여」. 『한국문화』 26, 2000, 35~56쪽.
- 이양혜, 『국어의 파생접사화 연구』.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0.
- 이영경, 「‘오래’와 ‘오래다’의 문법적 위상에 대하여」. 『형태론』 10/1, 2008, 1~18쪽.
- 이은섭, 「형식이 삭감된 단위의 형태론적 정체성」. 『형태론』 9/1, 2007, 93~113쪽.
-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현희, 「중세국어 부사 ‘도로’와 ‘너무’의 내적 구조」.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서울: 신구 문화사, 1996.
- 이현희, 「‘멀리서’의 통시적 문법」. 『관악어문연구』 31, 2006, 25~93쪽.
- 이호승, 「단어형성과정의 공시성과 통시성」. 『형태론』 3/1, 2001, 113~119쪽.
- 이희자, 「‘준말’과 ‘줄어든 풀’과 ‘줄인 풀」. 『사전편찬학연구』 7, 1997, 19~42쪽.
- 주경희, 「‘좁’과 ‘조금」. 『국어학』 36, 2000, 379~399쪽.
- 채완,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채현식, 「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 『형태론』 5/1, 2003, 1~21쪽.
- 최형용, 『국어 단어의 형태와 통사-통사적 결합어를 중심으로』. 서울: 태학사, 2003a.
- 최형용, 「줄임말과 통사적 결합어」. 『국어국문학』 135, 2003b, 191~220쪽.
- 최형용, 「단어 형성과 음절수」. 『국어국문학』 138, 2004, 183~205쪽.
- 홍윤표, 「국어사 시대구분의 문제점과 문법사의 측면에서 본 시대구분」. 『국어학』 25, 1995, 319~333쪽.

Booij, G., *The Grammar of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Clark, E. V., *The Lexicon in Acquis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Haspelmath, M., *Understanding Morphology*. London: Arnold, 2002.

### 국 문 요 약

지금까지 단어 형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절차였던 파생과 합성은 형식이 증가된 것들을 설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들을 포용하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식의 증감’을 기준으로 삼아 형식이 증가된 것, 형식에 변화가 없는 것, 형식이 감소된 것을 대등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부사는 바로 이들 세 가지 단어 형성 과정을 모두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특히 형식에 변화가 없는 것, 형식이 감소된 것에서 가장 다양한 형성 과정을 보여 준다. 형식의 증감을 기준으로 하면 형식이 증가된 것 가운데 조사나 어미와 같은 것들을 굳이 접사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점도 발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여 형성된 부사 형성, 영변화를 통한 부사 형성, 줄임을 통한 부사 형성은 ‘비접사 부사 형성’이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다.

● 투고일 : 2008. 10. 7.

● 게재확정일 : 2008. 11. 28.

● 주제어(keyword) : 통사적 결합(syntactical combination), 영변화(zero modification), 증가(addition), 감소(reduction), 비접사 부사 형성(adverb-formation without affixation).